

한국 기독교 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정희영 (총신대 유아교육과)

I. 서론

조선일보(2005)에서 “붕어빵 교육가라...폭발하는 대안학교”라는 제목으로 획일화된 교육으로 상징되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이는 이전의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학생을 위한 기관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비단 일반 대안학교에서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00년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육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독교 대안교육 협의회를 만들었고, 이후 계속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대협(기독교 대안학교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학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현재의 활동은 주로 이론이나 왜? 기독교교육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된 이론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적 준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교사들의 요구와 교육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교육과정의 개발은 잘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한미라(2005)는 그의 논문 ‘공교육의 위기와 기독교교육학의 역할 재정립’에서 실험적이면서도 현장중심적인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기독교교육을 위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현재 기독교 학교교육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함으로써 기독교 학교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어서 기독교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학교 교육에 있어서 예배,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 부모교육, 기독교 교사교육 등의 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크게 세 부분을 다루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철학, 그리고 기독교 교육목적에 대해서 다루었다. 두 번째 부분

은 기독교 교육의 실제로서 예배, 기독교 교육과정, 기독교 부모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사교육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한국 기독교 학교의 역사 및 현황을 다루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 가입한 학교 중 10개의 회원학교를 선정하여 그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학교라고 칭하는 미션스쿨이 아닌 기독교 교육철학에 의해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는 독수리기독교중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꿈의 학교,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로고스기독교학교, 한동국제학교, 광주동명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풀무고등학교이다.

본 연구의 도구는 한국 기독교학교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0개의 기독교학교에 우편으로 총 100부를 배부하였고 이 가운데 회수된 43부만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다중응답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의 분석 및 결론

본 연구 결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교육에서 핵심적 교과 가운데 하나인 예배와 관련된 질문에서 대부분의 기독교학교가 일주일에 예배를 1-2번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0%),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횟수 또한 일주일에 1-2번인 것으로 나타났다(72.1%). 설교는 외부강사, 교장선생님, 교목, 그리고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교본문은 설교자 임의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학교들이 예배를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에서의 예배는 학생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교량이며,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하는 일종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의 예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65.2%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9.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없이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교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도 입증되는데, 즉 79.1%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의 재량과 관계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39.5%의 교사들만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때,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기

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그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와 비교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그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셋째, 기독교학교에서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기독교학교의 운영에 부모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32.6%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형태는 ‘자녀교육에 대한 면담 및 상담’(61.0%)과 ‘자녀교육에 관련된 강의 및 세미나’(22.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기독교학교의 부모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모교육 또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독교학교의 88.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는 했으나, 바람직한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37.2%의 교사들만이 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에 일임해야 한다거나 교육 혹은 운영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60%가 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이며 부모는 단지 협조하고 참여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기독교교육에서 학교 교육은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자녀양육의 확장된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재교육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86.1%의 교사들이 교사재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7.4%의 교사들이 교사재교육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독교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독교학교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사의 학교관과 교육관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신본주의적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대학의 일반학과를 졸업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각 교과목의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86.1%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79.1%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하고 있고, 9.3%에 해당하는 교사들만이 기독교적 관점을 통합한 통합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통합된 교재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어떤 교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학자와 교과전문가, 그리고 기독교 교사의 협력 아래 교재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V. 제언

지금까지의 결론을 토대로 한국 기독교학교의 현황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교의 전반적인 영역을 심도깊게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정도, 예배의 문제, 교육과정,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교사재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기독교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와 학부모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에서 차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기독교학교를 통해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과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바람직한 기독교학교의 모델이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재교육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현장의 참관 및 견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기독교학교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관만 갖춘 기독교학교가 아닌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기독교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사훈련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사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교육과정과 기독교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독교 교육학자와 기독교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과정 및 기독교 교육 교재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